

註

① 東國輿地勝覽 卷十五 淸州牧屬縣條

「青川縣 左州東六十里 古薩買縣 一云青川 高麗改今名 來屬」

② 石燈殘石……伏蓮紋의 下臺石·八角竿石·仰蓮紋의 上臺石·八角蓋石 등이 남아 있는데 麗代의 樣式으로 推定된다.

〔附註〕韓國塔婆目録四三頁 忠北 槐山(一)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七七頁

考古美術 卍—

○ 서울新堂洞所在中國明代鐵鍾調査

一古鐵收集業者의 申告에 依하여 文化財管理局은 新堂洞 四三番地 所在의 在銘明代鐵鍾을 調査했는데 鍾高는 一七四cm였으며 保存狀態는 매우 좋았다.

○ 實相寺銅鍾의 移管

三月末 全北實相寺에서 出土된 新羅大鍾(破)은 當局指示에 의하여 七月十六日 東國大博物館에 移管되었다.

○ 石窟庵除濕裝置의 調整

그사이 機械一部分의 運轉이 圓滑치 못하여 七月下旬 李弘植委員 金孝經 李泰寧 兩教授의 現地出張이 있어 다시 調整되었다. 이때 釋迦塔遺物의 現狀도 調査되었다.

○ 李朝비너 뒤꽂이 特別展示

國立博物館에서는 七月十九일부터 八月六일까지 趙慶姬 任昌淳 趙美鈴 石宙善氏等 民間蒐集家들이 出品한 李朝時代의 비너 뒤꽂이等 一九二點을 特別展示했다.

○ 世宗·端宗胎室修改及表石豎立儀軌의 發刊

本會資料集第十六輯으로서 지난 七月一日 刊行되었다. 이 資料集은 世宗大王 胎室石欄干修改儀軌와 世宗大王·端宗大王胎室修改儀軌 및 世宗大王·端宗大王 胎室表石豎立時儀軌의 三冊을 모은 것이는데 이 原本은 現在 泗川郡守 金相朝氏의 珍藏으로서 昨年(一九六六年) 十二月中旬 新羅五岳綜合學術調査團이 智異山地區 調査次 泗川地方을 訪問했을 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資料集卷頭의 解題를 東濱 金岸基博士께서 親히 써 주셨고 各冊의 序頭에 그 表紙一枚의 사진을 掲載하여 字體와 體裁를 알 수 있게 하였다. 解題가 一六頁 世宗大王胎室石欄干修改儀軌가 二〇頁 世宗大王·端宗大王胎室修改儀軌가 三六頁 世宗大王·端宗大王胎室表石豎立時儀軌가 三八頁 都合 一一〇頁로서 四六倍版으로 油印本이다.

○ 德壽宮美術館所藏品目錄 刊行

德壽宮美術館에서는 所藏品目錄第一冊으로 書畫 및 佛像類를 作成하였는데 書畫部에서는 山水圖, 神仙圖, 古墳壁畫 등 二四種 全三七·五點을, 佛像部에서는 石製 銅製 등 一一種 全三一一點을 掲載하였는데 其他 遺物目錄도 繼續 作成刊行 할 豫定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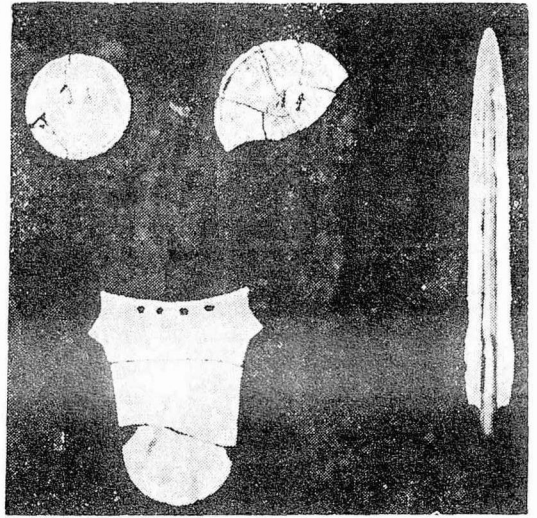
— 第八卷 第九號 通卷 八十六號 —

大田市 槐亭洞出土一括遺物 調査略報

李 殷 昌

一

西紀一九六七年 八月初에 大田市教育廳文化係의 依頼에 依하여 調査한 이 一連의 遺物은 大田市 內洞里에 居住하고 있는 孫龍甲氏가 지난 七月六日에 自己집 뒤에 있는 밭을 갈다가 古墳을 發掘하고 遺物을 파냈다는 것이다. 이를 葛馬洞派出所에서 引受하여 西大田警察署를 通하여 忠淸南道教育委員會에 알리고 教育委員會의 指示를 받아 大田市教育廳에서 收拾한 것인 바 그 內容은 石器·土器·青銅器·裝飾品等이다. 이들 遺物을 通하여 ① 青銅器時代의 文化樣相을 아는데 또 ② 大田地



方의 青銅器時代의 文化的 性格을 짐작하는데 重要な 資料이므로 于先 이에 略報하고자 한다.

二

遺物에 對한 記述에 앞서 遺物이 出土된 古墳을 알아보고자 한다. 筆者는 遺物을 調査한 다음에 遺物出土地인 現場을 調査하기 爲하여 이 遺物을 考

孫氏를 찾아 그의 案内를 받았다. 遺物이 나온 場所는 現在 孫氏가 耕作하고 있는 大田市 槐亭洞 二四四의 一四番地의 田地로 居住地인 內洞과의 接境地點이다. 이미 現場의 古墳은 完全히 파헤쳐버려서 그 詳細한 形態를 調査할 수 없었고 다만 孫氏의 말에 依하여 다음과 같은 形態를 把握할 수 있었다.

大田市 西境을 南에서 北走하는 高峰이 東으로 傾斜를 이루며 丘陵을 形成하였는데 이 丘陵이 大田市街로 連하는 低地帶에 接해 있는 龜背形臺地上에 古墳을 經營하였다. 그 構造는 積石下에 石槨을 築造하고 單葬한 墓制임을 알 수 있었다.

三

遺物은 앞에서 말한 石槨의 바닥에서 副葬品으로 埋藏되었던 것인데 그 副葬狀態는 孫氏의 말로 大略 짐작이 되나 正確한 把握을 할 수 없었고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는 동안 遺物의 破壞도 많은 것 같다.

A, 石器類 ① 石鏃(圖解(1)) 一個가 出土되었으니 灰青色의 水成岩을 研磨하여 製作한 總長 六·八cm의 無莖式三角形石鏃이다. 崙瑞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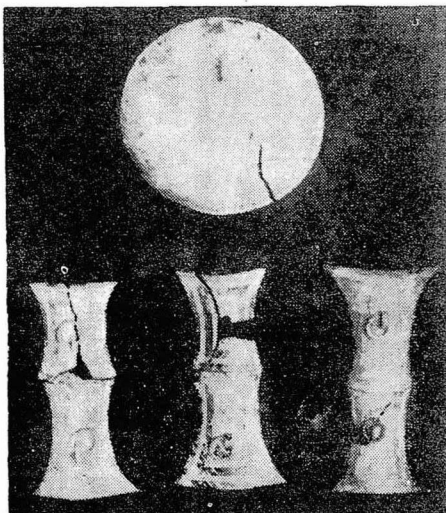
大山里의 逆刺式三角石鏃과 같이 出土된 無莖式三角石鏃(拙稿「瑞山 大山里 出土石鏃」古文化 第二輯) 또 小鹿島의 多細細文鏡과 伴출한 無莖式三角形石鏃(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 一五一號) 등의 發見例에 相通되는 것이다.

B, 土器類는 無文土器 一個와 黑陶 一個가 出土되어 注目되는 바이다. ① 無文土器(圖解(2))는 一部 破損되었으나 高一六·七cm 口徑一一·八cm(外徑)의 器形을 알 수 있는 것으로 微粒砂가 섞인 細土를 比저 低火度에 依하여 구어낸 無文土器에 屬하는 것이다. 色調는 紅褐色이고 低火度에 依한 不完全燒로 黑灰色의 部分을 남기고 器壁에 若干의 屈曲이 있고 吸水性이 많으나 器表面을 손으로 문질러 매끈하게 하였다.

② 黑陶(圖解(3))는 五十餘片으로 全破되었는데 復原은 可能하다. 破片에 依하면 그 胎土는 精選된 土質을 하고 低火度에 依하여 燒成된 黑陶에 屬하는 것이다. 色調는 黑色이고 特히 表面에 光澤이 있으며 器壁이 〇·三cm 乃至 〇·四cm로 얇아 黑陶의 特色을 보이고 있다. 그 堅度나 土質이나 色調나 모든 點에 優秀한 手法을 보이고 있다.

C, 青銅器類는 一

〇點에 達하는 多數를 찾아 하였다. 이들 中에서 細形銅劍·多細細文鏡·銅鐸等은 出土前例가 있어서 그關係가 밝혀지는 資料이며 特히 銅製楯形金具·銅製圓形金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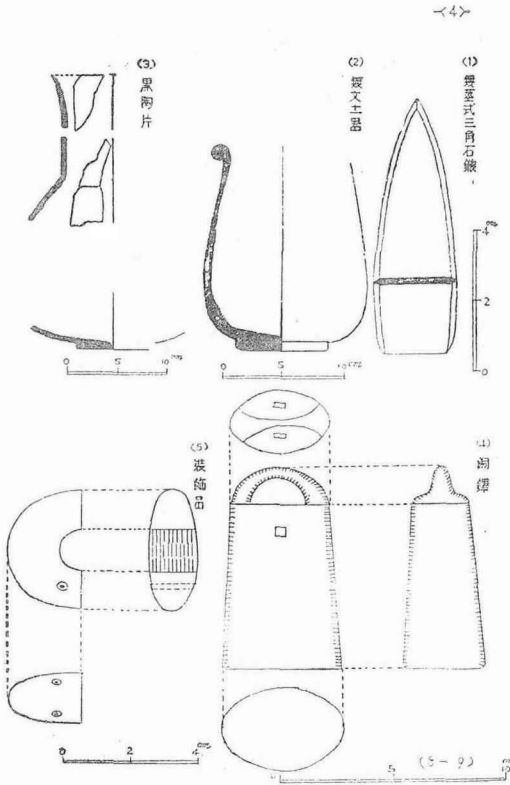


銅製劍把形金具 등은 前例가 없는 처음으로 出土된 新例로 注目되는 바다.

① 細形銅劍(卷頭寫眞(1)右) 漆黑色으로 光澤이 나는 良質이며 總長 三二cm의 典型的인 樣式이다. 곧 韓國全域에서 그 出土例를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日本에 이르는 分布를 보인다.

② 多紐細文鏡(其一)(卷頭寫眞(1)上段右)은 直徑約一一·三cm의 圓形인데 破片을 復原하면 初半部만을 얻을 수 있어서 背面은 雙紐가 完具하고 細線의 幾何學紋을 施紋하였다. 곧 粗文鏡에 屬하는 多紐細文鏡으로 成川鏡(朝鮮古文化綜鑑第一卷二二七號)보다 뒤지며 小 鹿島의 出土例(朝鮮古文化綜鑑第一卷一四九號)와 扶餘 蓮花里 出土例(金載元「扶餘·慶州·燕岐 出土 銅製遺物」震檀學報 創立三〇週年記念號)와 樣式年代를 같이 하여 精緻細文鏡의 前提品이라 하겠고 亦是 우리나라와 日本에 分布되고 있다.

③ 多紐細文鏡(其二)(卷頭寫眞(1)上段左)은 直徑 八·二cm로 前記「其一」보다 작으며 背面은 雙紐에 同心圓圈을 둘러 三區로 分하였는데 各



區의 細線紋이 規則的이고 整然하여 아름답다. 곧 益山 五金山 出土 多紐細文鏡의 樣式에 通하는 것으로 兩湖地方의 特色을 이루며 精緻細文鏡의 前提的인 意匠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粗文鏡에서 精緻文鏡에 過어가는 過程이라 하겠다.

④ 銅鐸(其一)(圖解(4)은 總高一一·四cm로 半圓形의 紐가 달린 鐸身이 아래로 퍼져가서 上促下寬의 모습을 하여 斷面杏仁形을 한 典型的인 樣式을 하였다.

⑤ 銅鐸(其二)은 그 構造와 樣式等이 前記「其一」과 同一하고 또 크기도 大略 같다. 이는 그 破損狀態가 더욱甚하여 鐸身 한쪽은 全部 깨어졌다. 이들 銅鐸은 平壤 貞柏里 出土例(朝鮮古文化綜鑑第一卷三四號)와 慶州 入室里 出土例(朝鮮古文化綜鑑第一卷一〇三號)와 同一樣式이며 同一系統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銅鐸이 既往에 大同江流域과 慶州地方에서 出土되었는데 今般 처음으로 錦江流域에서 出土되어 이들 銅鐸의 分布上에 注目되는 바다.

⑥ 銅製楯形金具(卷頭寫眞(1)下段)는 長(中央部)이 一六cm이요 幅(突出部)이 一三·五cm이다. 裏面은 亦是 漆灰黑色인 바 反을 받들듯한 光澤이 남아 있고 背面은 中央과 周緣에 格子紋(網帶紋)을 施紋하였다. 이 施紋法은 傳洛東江流域出土 銅製鈴附柄頭(朝鮮古文化綜鑑第一卷一四一號)의 施紋法과 같다. 그리고 上部에는 구멍(孔)四個가 뚫려 있어 끈을 꿰어 매어달(懸垂)게 하였다. 이와 같은 出土例는 이번이 처음으로 注目되며 그 用途는 未詳하다.

⑦ 銅製圓形金具(卷頭寫眞(2)下段) 銅製로 圓盤形을 하였는데 直徑二·一cm이고 厚〇·三cm로 背面에는 커다란 紐가 한 옆으로 지우쳐 있고 內面은 안으로 彎曲을 形成하였다. 이는 어떠한 銅製器皿의 圓形蓋로 推定되기도 하고 한편 「紐」의 位置가 偏在하고 있어 매어다는(懸垂)器具로 推定되기도 하지만 未詳하고 앞날의 研究가 期待되는 바다.

⑧ 銅製劍把形金具 三個(卷頭寫眞(2)上段)가 出土되었는데 三個 모두 破損이 있으나 復原이 可能하다. 形態는 竹節形을 하였고 大體로

鑄面半圓形으로 되었다. 第一節과 第二節로 區分되었는데 背面各節에는 精密한 紋樣이 施紋되었으니 其一은 沈刻斜線紋과 格子紋이 外形을 따라 施紋되었고 「其二」·「其三」은 沈刻斜線紋과 沈刻點線紋이 亦是 外形을 따라 交互로 二重施紋되었다. 그리고 各節마다 잘록된 가운데에 各一個씩의 紐를 形成하고 銅線을 꼬아 만든 것과 같은 고리(環)를 단들어 紐에 달았다. 裏面은 대나무(竹)를 沓개 놓은 것처럼 內入된 半圓形 凹部를 이루고 各節마다 紐를 一個씩 만들었다. 이들 金具의 用途는 未詳한데 그 背面施紋法이 傳洛東江流域 出土 銅製附八手形飾金具 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 一三八號의 施紋法과 같아 注目되며 그리고 一層 더 華麗하고 精密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構造는 背面 各節의 「고리」로 하여금 上으로 피 달고 또 下面 各節의 「紐」로 하여금 下로 懸垂物을 피달게 하였다.

D, 裝飾品은 石製裝飾品과 小玉이 出土되었다.

① 裝飾品(圖解(5))은 綠青色에 白色斑點이 있는 아름다운 石英質이 많은 돌로 製作된 것이다. 그 形態는 「圖解(5)」와 같이 圓環을 切半으로 나눈 것 같은 C字形으로 한 쪽에는 小孔을 뚫어 끈으로 피게 하였는데 이는 裝身具로 使用하던 裝飾品이라 하겠다. 이는 扶餘蓮花里出土 天河石製 裝飾品과 그 石質·形態가 똑같은 것으로 靑銅時代의 裝身具에 對한 앞날의 研究가 期待되는 바다.

② 小玉은 아름다운 綠青色 石製 小玉이 總五十個가 收拾되었다. 亦是 前記 裝飾品과 같은 石質로 같은 用途에 使用하던 것으로 推定된다.

四

却說 大田市를 中心으로 附近에는 支石墓가 分布되고 磨製石器(玃)가 出土되며 그리고 銅劍把頭飾(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 二〇八號)等이 出土되어 大田地方의 先史時代가 注目되어 오던 차에 今般 珍貴한 遺物이 出土되어 大田地方 나아가서는 韓國의 靑銅器文化의 性格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今般 遺物 出土에서 ① 靑銅器와 石器가 伴出한 것은 前例에 이어서 靑銅器時代에 石器를 併用하였다는 事實을 더욱 強調하는 것이라 하겠다. ② 靑銅器와 黑陶가 伴出한 것도 새로운 示唆를

주는 新例이며 漢江流域의 黑陶의 出土例는 있었지만 錦江流域에서의 黑陶의 出土例는 처음으로 注目되는 바다. ③ 靑銅器遺跡에서의 前述한 石製裝飾品의 出土는 扶餘 蓮花里의 出土例에 뒤이어서 두번째로 當時의 「악세사리」의 樣式成立考察에 새로운 注目を 이끄는 바다. ④ 靑銅器 自體에 있어서도 ① 精緻文鏡으로 넘어가는 前提品인 粗文鏡系의 多紐細文鏡의 出土例는 兩湖地方의 特色을 形成한 것으로 貴重한 資料라 하겠다. ⑤ 또 錦江流域에서 처음으로 銅鐸이 出土된 것은 銅鐸의 分布上 注目되는 바다. ⑥ 그리고 銅製劍把形金具의 施紋法의 精密함과 아울러 아름다운 놀라운 發展相이라 하겠고 또한 背面의 「紐」에 다시 「고리」를 附 二次元的인 工程을 겪어야 할 手法는 놀라운 鑄造法이라 하겠다. ⑦ 特別히 用途未詳의 銅製楯形金具·銅製圓形金具·銅製劍把形金具 等은 새로운 示唆를 주는 것으로 앞날에 正確한 判定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註) 大田市誌 古蹟編

〈追記〉

文化財委員會에서는 八月二十九日 文化財委員 秦弘燮 教授와 文化財專門委員 鄭永鎬 教授를 現地調査次 派遣하였으며 이와는 別途로 金元龍 教授와 國立博物館의 尹炳武 學藝官·金正基氏 韓炳三氏에 의하여 八月三十日에 現場이 發掘되었는데 豫測했던 바와 같이 深二·七m의 積石下에서 長二四〇cm 幅五〇cm의 南北主軸으로 된 石槨이 나타났다. 그리고 前述한 樣式과 같은 石槨一個·石製裝飾品一個·小玉若干과 銅製品破片이 土砂속에서 發見되었다. 地下에서 露出된 遺構를 앞에 놓고 孫龍甲氏의 說明에 依하면 椁 墓室·北端 西壁에서부터 시작하여 土器, 劍把形銅器, 銅鐸, 細文鏡, 圓蓋形銅器, 楯形銅器, 조금 사이를 두고 西壁 가까이 銅劍, 이와 相對하는 東壁 가까이 石槨, 다시 사이를 두고 中央에 裝身具가 있었다고 한다.

槐山 外沙里 寺址調查

—— 葆華閣 浮屠 原位置 ——

鄭 永 鎬

槐山郡 七星面 外沙里에 廢寺址가 있음은 오래 前부터 알고 있었던 바